

말하는 포도와 킨킨대는 사과와 노래하는 복숭아

글 · 신 현 배
시인 · 아동문학가

까마득히 먼 옛날, 어느 나라 임금님이 딸 셋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딸들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일 년에 한 번 큰 장이 섰습니다. 이 날은 그 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장날이 가까워지자 임금님은 세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며칠 뒤면 우리 나라에 큰 장이 선단다. 나도 그 날 장에 가려고 하는데,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아라. 무엇이든 사다 주마.”

세 딸은 무엇을 사 달라고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먼저 큰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바라마, 저는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싶어요. 황금으로 된 옷을 사다 주세요.”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꼭 사다 주마. 장터에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많으니, 그 중에는 황금으로 된 옷도 있겠지.”

임금님은 둘째 딸을 보았습니다.

“너는 어떤 물건이 갖고 싶니?”

둘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바라마, 저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신을 신고 싶어요.”

“알겠다. 아무리 비싸도 꼭 사다 줄 테니 기다려라.”

임금님은 막내딸을 보았습니다.

“너도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말해 보렴.”

막내딸이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바라마,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세 가지예요. 말하는 포도와 킨킨대는 사과와 노래하는 복숭아…….”

“뭐, 뭐라고?”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는 포도와 킨킨대는 사과와 노래하는 복숭아? 그런 물건이 장터에 있을까? 없으면 수소문해 서라도 사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임금님은 막내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장터에 가려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바라마, 저희가 원하는 선물을 꼭 사다 주세요.”

세 딸은 왕궁 문 앞까지 나와 임금님을 배웅했습니다.

임금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얼른 다녀오마.”

임금님은 마차를 타고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는 밭 디딜 틈도 없이 붐볐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물건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느라 모두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먼저 옷을 파는 곳에 가서 물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옷이 있느냐? 한 벌만 나오.”

다른 나라에서 온 장사꾼이 못 더미에서 못 한 벌을 끄집어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값이 비싸긴 해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옷이지요.”

임금님은 비싼 돈을 주고 금빛 찬란한 옷을 샀습니다. 큰딸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다음에 신발 따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신을 사고 싶은데…….”

임금님의 딸에, 장사꾼은 신발 한 켤레를 집어 들었습니다.

“역시 임금님은 다르시군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발을 사시다니요.”

장사꾼은 신발을 건네주며 감탄했습니다. 이리하여 둘째 딸에게 줄 선물도 샀습니다.

임금님은 막내딸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과일 따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포도, 사과, 복숭아를 따고 있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장사꾼은 과일을 봉지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과일 말고 이런 과일 있나? 말하는 포도와 킬킬대는 사과와 노래하는 복숭아…….”

“예?”

장사꾼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임금님도 참……. 그런 과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과일 장사 50년에 말하는 포도, 킬킬대는 사과, 노래하는 복숭아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구해다 주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글쎄, 그런 과일은 살 수 없대니까요.”

장사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막내딸이 원하는 선물을 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없지. 그땐 왕궁으로 돌아가자.”

임금님은 황금으로 된 옷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신발 마차에 싣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궁으로 가려면 들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마차 바퀴가 진창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말들에게 심한 채찍질을 해도 마차는 길 위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임금님 일행이 이렇게 낭패를 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큰 돼지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사 랑처럼 말하는 돼지였습니다.

“임금님, 도와 드릴까요? 막내 공주님을 제게 주신다고 약속하면 마차를 진창에서 빼 드리지요.”

임금님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마차를 진창에서 빼 나오.”

임금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돼지는 씩씩거리며 마차를 고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힘이 얼마나 센지 마차는 가볍게 길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온 임금님은 돼지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돼지가 뒤따라와서 막내딸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시녀 하나를 공주처럼 속여 돼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이 사람은 막내 공주님이 아니라 시녀입니다.”

이렇게 되자 임금님은 막내딸을 돼지에게 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 됐든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막내 공주를 데리고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돼지 우리로 갔습니다.

공주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우리에서 돼지 곁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돼지 우리에 아닌, 으리으리한 왕궁에 누워 있어서였습니다. 게다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은 돼지가 아니라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보여 드릴 것이 있는데 같이 가시지요.”

젊은이는 공주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공주가 갖고 싶던 세 그루 과일 나무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 킬킬대는 사과가 열린 사과나무, 그리고 노래하는 복숭아가 열린 복숭아나무였습니다.

젊은이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 나라의 임금입니다. 못된 마술사의 마법에 걸려 돼지로 변해 버렸지요. 저처럼 이 세 그루 과일 나무를 좋아하는 아가씨를 만나야 마법이 풀리는데, 운 좋게도 당신을 만났습니다.”

말하는 포도와 킬킬대는 사과와 노래하는 복숭아를 좋아하는 공주는, 이웃 나라의 임금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살았다고 합니다. 